

# 정부정책과 사회적 가치가 창업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정석균<sup>1)</sup>, 류창완<sup>2)</sup>, 임형록<sup>3)</sup>

## The Impacts of Political Incentives and Societal Values on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Sukkyun Chung<sup>1)</sup>, Chang Wan Ryo<sup>2)</sup>, Hyung Rok Yim<sup>3)</sup>

### 요 약

본 연구는 개인의 직업 경로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어 접근되어 왔던 창업의 선택 문제를 정책과 사회의 변인의 측면에서 확대시켜 접근하고자 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잠재적 창업자가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의 정책 유인뿐만 아니라 창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획득 가능한 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가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양 변인을 축으로 본 연구는 먼저 이론 모형을 구축했는데, 첫째,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모두 클 경우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 의지가 확대되고 반대로 모두 낮을 경우 창업 의지는 최소화된다. 둘째, 정부가 적극적인 창업 지원 유인 정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크면 클수록 잠재적 창업자들은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셋째, 정부는 항상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소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도 창업 의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양 변인의 조합에 따르는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 연구모형의 예측을 지지한다.

핵심어 : 창업, 취업, 정책유인, 사회적 가치, 성공확률

### Abstract

A decision making for becoming an entrepreneur is the function of the expected income from the entrepreneurial decision. If the expected income from the entrepreneurial decision is smaller than the fixed

---

Received (February 2, 2018), Review Result (February 10, 2018)

Accepted (April 6, 2018), Published (May 31, 2018)

<sup>1)</sup>Professor, the College of Policy Science,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chungphd@hanyang.ac.kr

<sup>2)</sup>(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Entrepreneurship,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Hanyang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yoocw@hanyang.ac.kr

<sup>3)</sup>(Co-author) Associate Professor, Th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E-mail: hryim@hanyang.ac.kr

income from worker status, an individual is potentially intended to choose to maintain his work status. This paper aims at scrutinizing how individual specific entrepreneurial career path choice is affected by both governmental supports and societal values on entrepreneurship itself. Practically, governmental supports can expand the chance to earn successful entrepreneurial returns. For pursuing the purpose of the paper, a theoretic model is constructed, which produc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when both the governmental supports and the societal values on entrepreneurship are both high enough, then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come entrepreneurs. Second, even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supports, individuals are responsive to the societal values as they can earn larger entrepreneurial compensations. Third, governments are able to sustain entrepreneurship taking advantage of conservative entrepreneurial policies. These theoretic predictions are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s.

Keywords : entrepreneurship, worker, policy, value, probability

## I. 서론

창업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담보해 선택해야 하는 인생을 건 도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직업 선택 경로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시키고자 하는 신생기업의 생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Hyytinena (2015)의 연구는 창업이라는 직업경로가 반드시 개인적인 역량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한다. 현실적으로 혁신적인 창업자는 자산 축적보다는 연구개발에 자원을 소모하려는 동기가 강해 경쟁상황이나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영전략상의 약점을 빈번히 노출하는 경향을 보인다(Brown et al., 2012; Minetti, 2011). 더불어 인생을 건 도박이니 만큼 성공적인 창업은 반드시 개인적 역량에 국한시킬 수 없고,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창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창업의 지속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oach et al, 2015; Nanda & Sørensen, 2010).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의 경로 선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창업자의 개인단위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Dai et al., 2017; Baron & Ensley, 2006). [1]-[9]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즉, 정부와 사회의 가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인의 창업 경로 선택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치에 접목시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창업을 개인의 선택문제로 국한시킬 경우 기대수익은 개인별로 자신의 비즈니스 성공확률에 준해 결정될 것이나 정부의 정책이 반영될 경우 그 확률 확대될 수 있기에 정부정책은 창업 경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Baron & Ensley (2006)은 창업은 신기술이나 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됨을 지적했다. 더불어 성공한 창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창업의 기대가치는 확대될 것이 이 또한 창업 의사 결정에 흥미로운 요소로 투입된다. Miao et al. (2017)은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연계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9]-[10]

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자의 기대수익을 설정한 이후 정부의 정책 변수와 사회적 가치 변수를 투입해 기대수익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 변수와 사회적 가치 변수를 적극적인 수준과 소극적인 수준으로 구분해 어떠한 조합 하에서 잠재적 창업자의 기대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소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에 따른 제안들은 OLS (ordinary least squares)와 2SLS (two stage least squares)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제 3 장에서는 직업 경로 선택의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균형점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방정식을 설정한 후 제 4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연구모형

### 2. 1. 창업 시나리오별 기대가치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x$ 라 할 때 창업자는  $p$ 의 확률로  $x$ 를 얻게 되고, 따라서 창업자가 획득할 수 있는 기대소득은  $px$ 로 주어진다. 창업자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고정소득은  $m$ 으로 주어지고, 잠재적 창업자가 창업과 취업 중 선택하는 가치 기준은  $px$ 와  $m$ 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px \geq m$ 을 만족한다면 개인들은 창업을 선택할 것이므로 자연적 확률에 준해 창업을 확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px < m$ 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개인들은 반드시 창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창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px < m$ 의 가능성에 준해 창업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성공확률  $p$ 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창업정책으로 정의하고, 정책효과는  $p + \alpha$ 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정한다. 즉, 창업자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의한 본연의 성공확률이  $p$ 이고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는  $\alpha$ 로 발현된다. 이는 자연 상태 하에서 잠재적 창업자의 성공확률이  $p$ 로 주어질 때 정부의 정책효과는  $p + \alpha$ 로 선형결합을 하게 되어 창업의 성공확률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수준은  $\alpha \in \{\alpha_p, \alpha_h\}$ 으로 주어지고,  $\alpha_h > \alpha_l$ 를 만족한다. 확률의 정의상  $0 \leq \alpha_h, \alpha_l \leq 1$ 를 만족한다. 즉, 정부는  $\alpha_h$ 와  $\alpha_l$  중 정책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alpha_h$ 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alpha_l$ 에 비해 보다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만 하므로 정부는  $\alpha_h$ 과  $\alpha_l$ 의 정책변수를 선택함에 있어 정책에 의한 기대가치를 고려해야만 한다.

정부의 정책 변수 이외에 잠재적 창업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 부여 수준이다. 창업자의 입장에서  $p$ 의 확률로  $x$ 를 획득하게 되지만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x$  자체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한 마디로 성공한 창업자에 대한 높은 명예나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일수록 창업을 통한 기대수익이 확장되므로 창업을 선택하기 쉬워지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보상의 수준을 외생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상정하고, 이 경우  $x+\beta$ 로 정의한다. 즉,  $x$ 는  $p$ 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창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나 성공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숙할수록  $x+\beta$ 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beta$ 는 창업자가 획득할 수 있는 물질적 보상 이외에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나 명예 등과 같은 추가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문화적 환경 보상은  $\beta \in \{\beta_h, \beta_l\}$ 로 주어지고,  $\beta_h > \beta_l$ 로 주어진다.  $\alpha$ 와  $\beta$ 의 조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성립하는데,  $\alpha$ 와  $\beta$ 의 조합에 따라 잠재적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기대수익은 (1)-(4)로 주어진다.

$$(p + \alpha_h)(x + \beta_h) \quad (1)$$

$$(p + \alpha_h)(x + \beta_l) \quad (2)$$

$$(p + \alpha_l)(x + \beta_h) \quad (3)$$

$$(p + \alpha_l)(x + \beta_l) \quad (4)$$

Proposition 1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창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 부여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창업자의 기대수익이 가장 커지게 된다는 점을 적시한다. 더불어  $\alpha_l$ 와  $\beta_l$  하에서 창업자의 기대수익이 가장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alpha$ 와  $\beta$  중 하나의 정책변수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roposition 1.  $\alpha_h$ 와  $\beta_h$ 의 조합이 창업의 기대수익을 극대화시키고,  $\alpha_l$ 와  $\beta_l$  조합 하에서 잠재적 창업자의 기대수익은 최소화된다.

증명. (1)에서 (2)를 빼면  $(p + \alpha_h)(\beta_h - \beta_l) > 0$ 을 만족하고, (1)에서 (3)을 빼면  $(\alpha_h - \alpha_l)(x + \beta_h) > 0$ 을 만족한다. (2)에서 (4)를 빼면  $(x + \beta_l)[p(\theta - 1) + (\alpha_h - \alpha_l)] > 0$ 를 만족하고 (3)에서 (4)를 빼면  $(p + \alpha_l)(\beta_h - \beta_l) > 0$ 를 만족하므로 (1)은 (2), (3), 그리고 (4)보다 크다. Q.E.D.

## 2.2. 창업 지원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중  $\alpha_h$ 가 개인의 성공확률  $p$ 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실적으로 창업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경우 잠재적 창업자들은 개인 고유의 성공확률  $p$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동시에 반응하기 마련이고 그러하기에 사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pha_h$ 를 지원하는 정부와 창업의 성공확률  $p$ 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theta(p+\alpha_h)$ 로 정의하고자 하고, 그 정의상  $\theta \geq 1$ 을 만족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alpha_l$ 을 선택할 경우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창출되지 못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1)과 (2)는 (5)와 (6)으로 재정의 된다.

$$\theta(p+\alpha_h)(x+\beta_h) \tag{5}$$

$$\theta(p+\alpha_h)(x+\beta_l) \tag{6}$$

Proposition 1에 준해  $\alpha_h$ 와  $\beta_h$ 의 조합이 창업 의지를 최대화시키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나  $\alpha$ 와  $\beta$ 는 각각 다른 성격의 변수라는 점은 인지되어야 한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beta$ 는 주어진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alpha$ 는 정부의 선택변수다. 다만 여기서 주지할 점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alpha$ 를 제공하는 하위 재원을 최소화시키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px < m$ 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 속에서 개인들은 창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p+\alpha_l)(x+\beta_l) \geq m$ 을 만족해야만 한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alpha_l$ 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취업 시 고정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점이다.

Proposition 2는 성공한 창업자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 수준이 창업을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적시한다. 즉, 창업에 대한 사회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창업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창업자들은 설령 정부가 낮은 수준의 창업 증진 정책을 선택할지라도 창업을 선택할 유인이 확대된다.

Proposition 2. 창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크면 클수록 잠재적 창업자들은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증명.  $(p+\alpha_l)(x+\beta_l) \geq m$  조건 하에서  $\alpha_l \geq \frac{m}{(x+\beta_l)} - p$ 를 만족한다. 만약  $\beta_l$ 이 증가하면 잠재적 창업자는 보다 낮은  $\alpha_l$ 에서도 창업을 선택할 유인이 확대된다. Q.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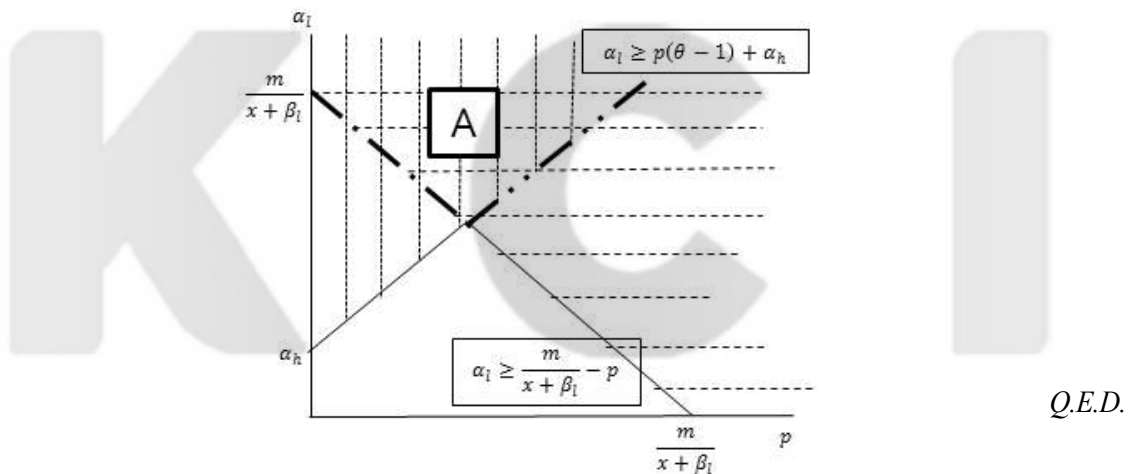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가치 변수  $\beta$ 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효과인 만큼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한 후  $\alpha_h$ 와  $\alpha_l$  중 정책 변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부는 (7)의 조건을 만족하는  $\alpha_l$ 를 찾아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p+\alpha_l) \geq \theta(p+\alpha_h) \tag{7}$$

(7)을 통해 도출된 Proposition 3은 국가의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각 국의 정부가 창업을 진흥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창업을 통해 취업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고정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소득을 성립시키는  $\alpha_l$ 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예산제약에 시달리는 정부일지라도 자신의 제약조건 하에 창업 진흥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한다. 이 점은 후진국의 정부 역시 창업을 진흥하고자 한다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Proposition 3.**  $\alpha_l \geq p(\theta - 1) + \alpha_h$  과  $\alpha_l \geq \frac{m}{(x + \beta_l)} - p$  를 동시에 만족하는  $\alpha_l$  이 존재한다.

증명. (7)을 정리하면  $\alpha_l \geq p(\theta - 1) + \alpha_h$  을 얻게 되는데,  $\alpha_l \geq \frac{m}{(x + \beta_l)} - p$  의 조건식과 함께 정부가 선택 가능한  $\alpha_l$  을 구성한다. [그림 1]은 두 가지 조건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A로 표시한 것으로 정부는 점선으로 표시된 선을 따라  $\alpha_l$  을 설정하게 된다.



[그림 1] 창업 지원 정책의 설정 구간

[Fig. 1] The Feasibility of Entrepreneurial Supportive Policy

[그림 1]은 정부가 선택 가능한  $\alpha_l$ 의 전 구간을 설정하는데, 각  $\alpha_l$ 는 창업의 성공확률  $p$ 에 상응하는 것으로 A구간에서는 설령  $\beta_l$ 로 창업에 대한 사회가치 수준이 낮더라도 이러한 제한된 사회가치적 조건에서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 III. 실증분석

#### 3.1.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발간하는 2013 Global Individual Level Data로 해당 데이터는 미국 내 창업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서베이를 한 횡단면 자료에 해당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상 GEM NEC 데이터 첫째, GEM이 공적으로 발간하는 횡단면 자료로써 공신력이 매우 높고, 둘째,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인 단위의 편의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셋째, 총 292개 항목에 달하는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성공 확률 보상과 부채 보상에 관련한 정보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한다.

### 3.2. 모형 구축

(7)은 창업과 관련해 성공한 창업자가 가지는 보상과 정부의 시스템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조합과 결부해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 창업을 선택하기 쉬울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NE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창업 전환과 관련된 항목이 충분치 않은 만큼 해당 변수를 통해 최대한의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7)에서 독립변수  $y_i$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자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직업 경로로 간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beta_1 x_{gm,i}^{hh}$ ,  $\beta_2 x_{gm,i}^{hl}$ ,  $\beta_3 x_{gm,i}^{lh}$ , 그리고  $\beta_4 x_{gm,i}^{ll}$ 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조합을 위해서는  $x_{g,i}$ 와  $x_{m,i}$ 를 사용했는데, 먼저  $x_{g,i}$ 는 새로운 신생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정도를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창업 컨설팅을 포함해 창업 지원 에이전시에 대한 시스템적인 지원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변수다. 따라서  $x_{g,i}$ 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창업자들의 성공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다.  $x_{m,i}$ 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한 창업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x_{m,i}$ 가 높을수록 잠재적 창업자들은 보다 높은 창업의 기대수익을 확신하게 되고 따라서 창업을 선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시나리오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양 변수를 통해 설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조건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최선의 선택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유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더미변수 조합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x_{g,i}$ 와  $x_{m,i}$ 를 더미변수로 전환해 모형의 자유도를 유지하면서 시나리오 조합에 따르는 회귀계수를 획득해 어떠한 시나리오 조합에서 창업을 선택하기 쉬운 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y_i = \beta_1 x_{gm,i}^{hh} + \beta_2 x_{gm,i}^{hl} + \beta_3 x_{gm,i}^{lh} + \beta_4 x_{gm,i}^{ll} + \beta_5 x_{u,i} + \beta_6 x_{f,i} + \epsilon_i \quad (7)$$

시나리오 조합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 5점 척도로 되어 있

는  $x_{g,i}$ 와  $x_{m,i}$ 를 더미변수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x_{g,i}$ 와  $x_{m,i}$  각 변수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을 경우 높은 수준으로 간주하고 평균보다 낮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간주해 각각 1의 값을 주는 더미 변수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x_{g,i}$ 는  $x_{g,i}^h$  그리고  $x_{g,i}^l$ 의 두 가지 더미변수 그리고  $x_{m,i}$ 는  $x_{m,i}^h$  그리고  $x_{m,i}^l$ 의 두 가지 더미 변수를 산출하는데, 이들 더미변수의 조합을 통해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 1]  $x_{g,i}$ 와  $x_{m,i}$ 의 조합에 따르는 시나리오 구성

[Table. 1] The Scenarios by the Combinations of  $x_{g,i}$  and  $x_{m,i}$

변수	정의	설명
$x_{gm,i}^{hh}$	$x_{g,i}^h * x_{m,i}^h$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적인 창업 거들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모두 높음
$x_{gm,i}^{hl}$	$x_{g,i}^h * x_{m,i}^l$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은 높지만 성공적인 창업 거들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낮음
$x_{gm,i}^{lh}$	$x_{g,i}^l * x_{m,i}^h$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은 낮지만 성공적인 창업 거들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높음
$x_{gm,i}^{ll}$	$x_{g,i}^l * x_{m,i}^l$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적인 창업 거들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모두 낮음

$x_{u,i}$ 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고용 안정망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x_{f,i}$ 는 창업자가 재료 공급원이나 컨설턴트 혹은 비즈니스 계약 안정망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창업의 인프라를 측정한다. 창업 인프라의 경우 역시 창업 의지에 정(正)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7)의 선형방정식을 추정함에 있어 화이트 표준편차 (White standard error)를 통해 신뢰도를 판정할 것인데, 화이트 표준 편차는 이분산성을 교정해 가설검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 3.3 실증분석 결과

[표 2]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Proposition 1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와 지위의 수준 모두 낮은  $x_{gr,i}^{ll}$ 에 비해 모두 높을 경우 유의적인 수준에서 창업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높고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와 지위의 수준 낮은 경우와 반대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낮고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와 지위의 수준 높은 경우에 비해 모두 높을 때 창업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roposition 1은 지지된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의 가치 수준



은 상대적으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창업 의지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의한 수준에서 정(正)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x_{gr,i}^{lh}$ 은 설령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낮을지라도, 사회가치가 높을 경우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Proposition 2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고용인에 대한 직업 안정성은 예상과 같이 창업 의지에 일견 부(負)의 효과를 미치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비유의적일지라도 부(負)의 효과가 발현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창업 인프라는 예상과 부합하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에서 정(正)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OLS: 시나리오 분석

[Table. 2] OLS: Scenario Analysis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x_{gr,i}^{hh}$	3.1899*** (0.0920)	3.5303*** (0.0939)	3.2667*** (0.1238)
$x_{gr,i}^{hl}$	3.0835*** (0.0834)	3.4133*** (0.0891)	3.1834*** (0.1163)
$x_{gr,i}^{lh}$	2.4723*** (0.0965)	2.7914*** (0.1062)	2.5529*** (0.1305)
$x_{gr,i}^{ll}$	2.3332*** (0.0790)	2.6561*** (0.0935)	2.4304*** (0.1146)
$x_{u,i}$	-	-0.0381 (0.0246)	-0.0377 (0.0249)
$x_{f,i}$	0.0735*** (0.0251)	-	0.0842*** (0.0262)
$R^2$	0.8987	0.8973	0.8981
관측치	1,770	1,701	1,655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첫째,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효과에 따르는 창업 성공 확률 유인과 사회에서 부여하는 창업의 가치 변인이 모두 높을 때 창업의 기대수익이 가장 크고 따라서 창업의 유인이 가장 확대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특히 양 변인 모두 낮을 경우에는 창업 의지가 가장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둘째, 성공확률 유인이 높고 창업자원 유인 낮은 경우와 성공확률 유인이 낮고 창업자원의 유인이 높은 경우는 조건부적 확률에 준해 창업의 기대수익이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공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크게 부여될수록 창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효과에 크게 반응하게 된다. 이는 창업을 통해서 획득 가능한 소득 수준에 사회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창업을 진흥시키고자 할 경우 창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 수준을 향상시키는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정부는 적극적인 창업 진흥정책 뿐만 아니라 소극적 정책을 통해서도 정책 효과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모형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Proposition 1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사회의 가치가 모두 높을 경우 창업 의지가 가장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설령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소극적일지라도 성공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의 가치 수준이 높을 경우 창업 의지는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가 소극적인 수준일지라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을 경우 창업의지가 높아지므로 Proposition 2의 제안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넷째, 창업인프라는 유의적인 수준에서 창업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 시의 직업 안정성은 창업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 요인과 관련된 정책 변수를 고려해 세분화된 접근이 시도해 보고자 한다.

## References

- [1] D. Evans, B. Jovanovic,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1989), Vol. 97, pp.808-827.
- [2] R. Kotha, G. George, *J. Bus. Venturing*. Friends, family, or fools: entrepreneur exper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equity distribu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2012), Vol. 27, pp. 525-543.
- [3] A. Hyytinen, M. Pajarinen and P. Rouvine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Does innovativeness reduce startup survival rates?. (2015), Vol.30, No.5, pp.564-581.
- [4] J. R. Brown, G. Martinsson and B. C. Petersen, *European Economic Review*. Do financing constraints matter for R&D?. (2012), Vol.56, No.8, pp.1512-1529.
- [5] Minetti, *Review of Finance*. Informed finance and technological conservatism. (2011), Vol.15, pp.633-692.
- [6] M. Roach and H. Sauer mann, *Management Science*. Founder or joiner? The role of preferences and context in shaping different entrepreneurial interests. (2015), Vol.61, No.9, pp.2160-2184.
- [7] R. Nanda and J. B. Sørensen, *Management Science*. Workplace peers and entrepreneurship. (2010), Vol.56, No.7, pp.1116-1126.
- [8] N. Dai, V. Ivanov and R. A. Col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Entrepreneurial optimism, credit availability, and cost of financing: Evidence from us small businesses. (2017), Vol.44, pp.289-307.
- [9] A. Baron and M. D. Ensley, *Management science*. Opportunity recognition as the detection of meaningful patterns: Evidence from comparisons of novice and experienced entrepreneurs. (2006), Vol.52, No.9, pp.1331-1344.
- [10] C. Miao, J. E. Coombs, S. Qian and D. G. Sirm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 meta-analysis of resource orchestration and cultural contingencies. (2017), Vol.77, pp.68-80.